

부산체육

투투



부산광역시체육회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NOVEMBER 2021 VOL.21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이슈 앤 포커스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에 앞장서다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복싱협회
손영찬 원로 인터뷰

노력의 땀방울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주)태양금속 대표 조윤섭 인터뷰

구·군체육회를 가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도시에서
생활체육으로 하나가 되다!
사하구체육회

CONTENTS



이슈 앤 포커스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복싱협회 손영찬 원로

사각의 링을 주름잡다



노력의 땀방울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조윤섭

진일보된 부산 빙상계 꿈꾸며 치열한 행보를 이어가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사하구체육회

강과 바다가 만나는 도시에서 생활체육으로 하나가 되다!



학교체육 탐구생활

해운대중학교 풋살스포츠클럽

부산을 넘어 전국 1위로 승승장구! 명실상부 풋살의 최강자로 자리 잡다

메가스�포츠 한마당

이슈 앤 포커스

13일(토요일) 09:00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에 앞장서다

2021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부산과 울산, 경남 도시 간 스포츠 교류와 화합을 위한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지난 11월 13일(토) 개최됐다. 대회는 아시아드주경기장과 APEC 나루공원, 삼락공원 등에서 펼쳐졌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최초의 권역별 스포츠 이벤트로 체육인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었던 만큼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종목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야구, 조정, 카누, 테니스, 파크골프 총 7개이며, 주관하는 각 단체의 규칙 등을 적용해 비경쟁 친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면서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했다.





한국형뉴딜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인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은 부산과 울산, 경남의 지역별 거점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연결해 대도시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에 부·울·경 메가스포츠 한마당이 지역스포츠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과 울산, 경남 체육 동호인들의 단합으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를 치렀다”며 “이번 대회 모범적인 참여가 동남권 지역체육의 새로운 발걸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경상남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3년에는 울산에서 추진된다. 체육계의 힘찬 비상이 앞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다려진다.





사각의 링을 주름잡다

선수 시절 손영찬 원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운동을 했다. 나무에 매달린 나뭇잎을 샌드백 삼아 복싱의 공격 기술인 잭을 연습하기도 했다.

“복싱은 노력한 만큼 결과로 나타나요. 매일 꾸준히 반복해야 실력이 되고, 안정적인 자세로 좋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손영찬 원로는 왼손을 사용하는 사우스포 (Southpaw)로 탄탄한 기본기와 상대선수의 공격을 빠르게 되받아치는 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부산 선수 최초로 제5회 아시아경기대회 복싱 플라이급에서 1위를 차지했고, 세계군인복싱 선수권대회에서는 2년 연속 3위를 했다.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복싱협회
손영찬 원로

복싱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은 지도자의 길로 이어져 모교인 동아대학교에서만 31년간 감독을 맡았다. 손영찬 원로가 감독을 맡을 당시 제자들은 전국대학복싱선수권대회에서 8번이나 1위를 했고, 국내대회에서 250개 정도 금메달을 땀다. 국제대회에서도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고 하잖아요. 복싱의 기본인 잼과 스트레이트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어요.”

복싱은 올림픽경기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책임지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다시금 그때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다.

“복싱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선수를 양성해야 해요. 획일화된 가르침이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죠.”

손영찬 원로와 함께라면 복싱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그리 먼 일이 아닐 것이다.



진일보된 부산 빙상계 꿈꾸며 치열한 행보를 이어가다

지난 4월 부산빙상경기연맹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조윤섭 회장은 새로운 도전을 향한 출발선을 이제 막 넘었다. 취임 이후 부산 빙상계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논스톱 선수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해가고 있는 중이다.

“안타깝게도 부산은 빙상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동호인 2,000여 명, 학생 선수 60여 명뿐이어서 빙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열정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주)태양금속을 설립해 40여 년간 성장·발전 시켜온 대표이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절감했던 그는 여러모로 열악한 부산 빙상계를 돕기로 결정했다. 기업을 이끌며 쌓아왔던 폭넓은 인맥과 경영 노하우를 부산빙상경기연맹에 쏟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노력의 땀방울

부산빙상경기연맹 회장,
(주)태양금속 대표

조윤섭



“부산에 초·중·고 빙상부는 있지만 대학팀과 실업팀은 없습니다. 진학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어 선수들이 부산에 뿌리내린 뒤 성장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부산 빙상계와 꿈나무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학팀과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빙상실업팀 창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부산시장과 20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업팀 창단의 현안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에는 부산시민에게 빙상경기의 매력과 장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다. SNS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행사와 경기를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 또한, 현 국가대표를 초빙한 팬사인회, 1일 교사 등의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에게 빙상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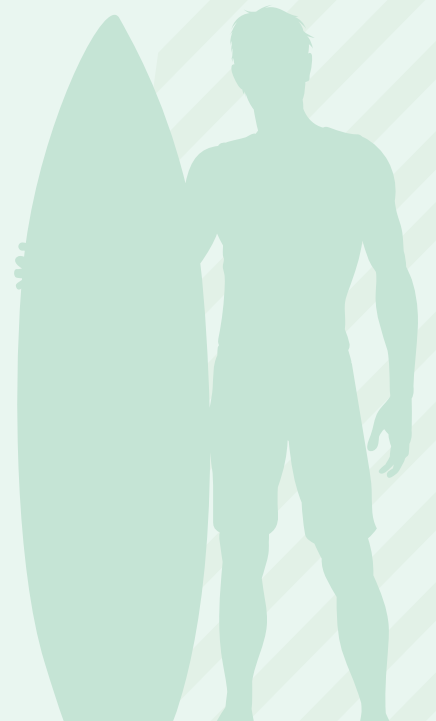
강과 바다가 만나는 도시에서 생활체육으로 하나가 되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사하구체육회



‘스포츠로 하나되는 행복도시 사하’라는 슬로건으로 건강한 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사하구체육회는 총 26개 종목, 263클럽, 10,396명(정회원 18개 종목, 준회원 1개 종목, 인정단체 7개 종목)이 소속되어 있다.

사하구체육회는 단일 주력종목보다 전반적인 분야에서 골고루 두각을 나타낸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체육인들이 모인 사하구 정구팀, 사하FC, 사하리틀야구단, 다대포해양스포츠센터 등은 청장년층 생활체육인들의 집합지이기도 하다.





노정석 회장의 각오!

사하구축구협회장과 사하구체육회 수석부회장을 맡으며 사하구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 행복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사하구체육회의 큰 목표입니다. 생활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인들의 권리와 복지 권익 향상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하구체육회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확보에도 적극 나서는 등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늘리고 있다. 사하구체육회의 행보는 세대를 넘어 마치 강과 바다가 만나듯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하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장점은 천혜의 환경과 수변(水邊)자원을 잘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수업'으로, 다대포해양레포츠아카데미 센터와 연계한 서핑교실은 다른 구에도 입소문이 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올 12월경부터는 을숙도공원 테니스장 돔구장 건설과 신평레포츠공원 내 개방형 체육관 건설이 시작될 예정으로, 사하구체육회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하고 있다.

부산을 넘어 전국 1위로 승승장구! 명실상부 풋살의 최강자로 자리 잡다

학교체육 탐구생활

2018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풋살대회 1위
해운대중학교 풋살스포츠클럽



해운대중학교에는 매일 점심시간과 화·목요일 방과 후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푸른 잔디 위를 달리는 풋살스포츠클럽 학생들이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풋살대회에서 전승 무실점 1위로 2연패를 차지하고, 부산대표로 참가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풋살대회에서는 무패 1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다. 부산광역시장기 풋살대회 중등부,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 히어로즈(FUTSAL HEROES) 부산대회 및 전국대회 트로피까지 거머쥐며 풋살의 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해운대중학교 풋살스포츠클럽. 순수하게 학생들의 땀과 교사의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축제에서 그들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우승이 아니라 대회에 참가해 노력한 가치를 인정받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을 즐겼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육 VOL.3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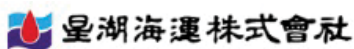
부산체육 투투

NOVEMBER 2021 VOL.21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달리
스타자동차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